



2014년 일본도서관협회 제100회 전국도서관대회 참관기



글 | 최인경

한국도서관협회 회원협력팀 대리
ikchoi@kl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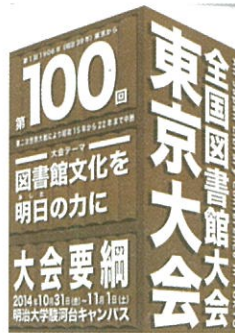
광주에서 동경으로

2014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51회 전국도서관대회가 '한국인의 삶과 미래, 도서관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2013년 제50회 전국도서관대회를 치러내고 올해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반백 년을 시작하는 제51회 전국도서관대회를 맞이하여 대회장 내에 우리 도서관인이 가득했으며 우리 협회 직원들도 대회 참석자들을 맞이하느라 그 어느 협회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와 하루 맞물려 일본에서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100회 전국도서관대회가 '도서관의 문화를 내일의 힘으로'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도서관대회 방문은 양국의 양해 각서 체결에 의한 것으로 우리 협회와 일본도서관협회는 각국 도서관계의 교류협력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방문하고 있다. 작년에는 우리 협회 제50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일본도서관협회 대표단이 참석한 바 있다.

올해에는 우리 협회 윤희운 회장, 김영석 국제교류위원장, 최인경 회원협력팀 대리로 구성된 한국도서관협회 대표단이 일본도서관협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 전국도서관대회의 개최 기간에 맞춰 10월 30일 오후 5시 광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다시 일본 나라타공항에 오후 10시가 되어 도착했다. 그렇게 이번 일본도서관협회 제100회 전국도서관대회 일정이 시작되었다.

100번째 전국도서관대회



▲ 일본도서관협회 제100회 전국도서관대회 포스터



▲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안내 깃발을 든 자원봉사자

모리 아카네(森茜)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일본도서관협회의 제1회 전국도서관대회는 1906년 제국도서관 신축 낙성식에 맞춰 당시의 동경제국대학에서 개최된 후 관동대지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8년을 제외하고 매년 일본 각 현에서 개최되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도서관인의 큰 자리가 100회나 열렸다는 것은 오롯이 그 숫자만으로도 일본 도서관인에게 의미를 가지기에 충분했다. 또한 이번 제 100회 전국도서관대회를 일본도서관협회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는지 직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일본도서관협회는 이번 대회를 맞이하여 우리 협회 윤희운 회장 외에도 제니퍼 니콜슨(Jennifer Nicholson)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사무총장, 코트니 영(Courtney Young) 미국도서관

관협회 회장, 제니 판더(Jeanne Pfander) 미국 애리조나주 도서관협회 호너펠로우십위원회 위원장, 알렉산드라 험프리(Alexandra Humphreys) 미국 애리조나주도서관협회 호러펠로우십위원회 차기위원장을 함께 초대해 일정을 함께 했다.

메이지대학도서관 견학

제100회 전국도서관대회는 일본 동경에 위치한 메이지대학 스루가다이 캠퍼스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일행은 미우라 타로(三浦 太郎) 일본도서관협회 국제교류위원장과 마츠야마 이와(松山 巖)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의 안내로 메이지대학 도서관을 견학했다. 도서관은 지상 1층, 지하 3층 구조로 2001년 재개관했으며 2002년에는 제18회 일본도서관협회 건축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시설도 훌륭했고 다양한 장소로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동경에 위치한 캠퍼스인 만큼 학교와 그 외의 공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도서관 건물 바로 앞으로 상업시설이 있고 차들이 계속 다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면 각종 소음이나 외부 공간과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리고 지상과 지하로 연결되는 공간을 채광이 가능한 창과 계단으로 구성해 지하 공간까지 햇빛이 들어오도록 설계한 점에 우리 모두 이 건물이 상을 받기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메이지대학에 한국학 사서로 일하고 있는 요시다 씨의 유창한 한국어 설명으로 건물을 돌아보면서 신기했던 점은 많은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인 만큼 대규모인 서고와 그 서고를 모든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서고 내에서 자료를 찾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도서관도 서고에서 이용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주 통로와 그렇지 않은 곳에 형광등 불빛을 다르게 하거나, 곳곳에 지도를 배치하고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전화를 배치하여 서고라고 하지만 이용자들이 같은 도서관 공간으로써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었다. 지진 대비에 항상 충실한 일본인만큼 서고의 가장 아래층 서가는 천장과 바닥까지 이어진 철제 서가를 다시 한 번 엑스자로 지지 하고 있었으며, 모바일랙을 2층 구조로 조성하여 공간을 활용한 것도 특색 있는 점이었다.



▲ 메이지대학도서관 견학



▲ 지진을 대비해 제작된 서가

개회식과 분과회의

제100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은 10월 31일(금) 오후 1시 30분에 일본 도서관 관계자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이지대학 아카데미홀에서 개최되었다. 모리 이카네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의 역사를 설명하고 특히 올해에는 일본도서관협회 외에도 국회도서관 및 일본 전국에 있는 도서관 단체 8개 단체가 공동 주최가 되어 대회를 개최해, 앞으로도 도서관 단체들이 함께 새로운 도서관 활동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인사말을 전했다. 우리 협회 윤희운 회장도 이 자리에서 일본도서관협회의 제100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인사를 전달했다.



▲ 제100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식



▲ 한국도서관협회 대표단과 JLA 회장단과의 담화



▲ 축사를 하는 윤희운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그리고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다과와 함께 모든 도서관인 이 함께 답소를 나누는 '전국도서관대회 교류 친목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전국도서관대회의 '만남의 자리'와 같이 전국에서 모인 사서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소리에 웃음소리와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 대표단 또한 그동안의 한일 도서관계의 교류를 통해 친분이 있던 인사들을 다시금 만나 안부를 묻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며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날 저녁 바쁜 일정 중에도 모리 아카네 이사장과 우리 협회 윤희운 회장은 한국도서관협회와 일본도서관협회의 발전적인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금 이 자리를 토대로 앞으로 한층 진보한 한일 도서관계의 미래를 위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대회에는 양일간 기조 포럼 및 41개 분과 회의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일본도서관협회는 이번 100회 전국도서관대회를 맞아 '세계의 도서관 정보학 교육'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션을 준비하였다. 우리 협회 윤희운 회장이 한국의 문헌정보교육에 대한 발표를 요청받아 '한국 문헌정보교육의 현상과 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교육 구조와 앞으로의 발전적인 사서 양성에 대한 한국 도서관계의 계획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제니퍼 니콜슨 IFLA회장과 코트니 영 미국도서관협회 회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제10분과 : 세계의 도서관 정보학 교육

- 발표1 :** 제니퍼 니콜슨(Jennifer Nicholson)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사무총장
· 미래 도서관과 정보서비스를 위한 교육과 훈련 : IFLA 리포트와 통해 본 국제적인 정보환경의 발전에 따른 문헌정보교육의 필요성
- 발표2 :** 윤희운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 한국 문헌정보교육의 현상과 과제
- 발표3 :** 코트니 영(Courtney Young) 미국도서관협회 회장
·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문헌정보학 교육
- 발표4 :** 제니 판더(Jeanne Plander) 미국 애리조나주 도서관협회 호너펠로
우심위원회 위원장
알렉산드라 험프리(Alexandra Humphreys) 미국 애리조나주 도서관
협회 호너펠로우심위원회 차기위원장
· 애리조나주의 문헌정보학(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 발표5 :** 스기모토 시게오(杉本重雄) 츠쿠바대학 도서관정보미디어학과 교수
· 츠쿠바 지역의 문헌정보학 학교

현직의 사서부터 문헌정보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까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 30분동안 이루어진 세션에서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없었다.

약 5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 동안에도 참가자들의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없었으며, 같은 시간에 메이지 대학 건물 내에서 이루어진 타 발표장에도 가득 찬 참가자들 보며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에 대한 일본 도서관인의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의 문화를 내일의 힘으로'라는 이번 100회 대회에 걸맞게 현재 일본의 도서관계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도서관계 교육의 동향을 읽어 계속해서 도서관계를 키워 나가려는 일본도서관협회의 노력도 살펴볼 수 있었다.



▲ 발표하고 있는 윤희윤 회장



▲ 세션 관계자들과 함께

장도 각 국의 도서관협회를 연구하고자 한창 대회가 개최되는 중에도 일본도서관협회 사무국을 직접 방문해 일본도서관협회의 많은 자료를 구했다.

서울행 항공기에서 동경 시내를 내려다보며,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도서관대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도서관의 삶과 미래에 대해 우리 도서관인은 끝없이 묻고 답하며 함께 내일의 길로 걸어갈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

동경에서 서울로

이로써 3박 4일이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은 2일뿐이라 짧지만 했던 일본도서관협회 제100회 전국도서관대회 참석 일정은 모두 끝났다. 물론 위의 일정 외에도 일정 사이 사이 시간을 쪼개어 발표자들은 세션 준비를 위해 두 번의 미팅을 가졌고, 각 나라에서 모인 초청자들과 함께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우리 협회 김영석 국제교류위원